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위한 육성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는 지난 13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산학융합원 등 혁신기관 관계자및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소개와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기술창업 육성,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과 특화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소개했으며, 부스운영을 통한 지원사업 수요 파악 및 기업애로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사업 2년차를 맞은 군산 강소특구는 올해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혁신 네트워크 운영, △특화개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화개별 지원사업언 △Jump-Up 성장지원(기술개발 및 특허출원 지원), △Tech-Up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지원), △Value-up 컨설팅 지원(기술·기획·경영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클러스터 수요-공급 기업 간 컨소시엄에 상생협력형 사업화를 지원해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특화분야 혁신정책 및 기술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기술 교류회를 연 10회 운영하고, 특화분야 기업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기술특강, 전시회 참관, 벤치마킹 활동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연구회를 연 8회 운영해 혁신 주체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화개별 지원사업 중 매출연계형 시제품 제작과 아이디어형 신제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Tech-Up 기술지원 사업'은 오는 6월 1일부터 신청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 강소특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소특구육성사업단(☎063- 469-893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 선정

국비 3억3000만원 확보… 산업단지 안전 데이터 구축 등 활용

익산시가 정부의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사업 선정으로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뉴딜사업인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 기술이 필요한 기관과 기업이 협업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산업단지 안전 데이터 구축'을 주제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산업단지 건물 속성정보, 공장 현황, 융합데이터 등 2천건의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할 예정이다.

구축된 데이터는 산업단지 화재 위험 관리, 화재 예방 합동 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데이터 관련 기업과 협약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 안전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구축된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청년인턴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나가겠다"며 "결과를 현안분야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과학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댐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 국가예산 확보 연일 '강행군'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오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중앙부처 순회 방문에 이어, 13일 문화재청과 산림청을 방문해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문화재정 고도보존육성과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유산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체험공간인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서동생가터 유적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이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과 산림지원과장 등을 만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심권 내 폐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녹색공간 조성사업인 '오산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기 조성중인 '국립 익산 치유의 숲'과 함께 지역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해 줄 '함라산 지역특화림 조성' 등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산림환경분야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부처별 예산 실링이 배정돼 사업반영이 적극 검토되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을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오 권행대행을 필두로 각 국·소·단장 중심을 연일 중앙부처 일제 방문해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바다의 날을 맞아 민관합동으로 새만금방조제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추진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군산시, 바다의 날 대비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성료

군산시는 바다의 날을 맞아 민관합동으로 새만금방조제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추진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신시도에서 야미도까지의 방조제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시를 비롯해 전라북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수협, 해양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8개 공공기관과 어촌계 주민,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등 총 120여 명이 참여해 페스티로폼 및 폐어구, 폐어망 등 각종 해양쓰레기 5톤을 수거했다.

시는 여러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합동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청정한 연안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시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수매사업,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및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한 해동안 1,9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2,650톤 수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봉 항만해양과장은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추진한 오늘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기관들이 한마음으로 연안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공동급식 지원 농촌·농민 일손 도와

익산시는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을 돕기 위해 공동급식을 시작했다.

시는 5월부터 농촌마을에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급식 사업을 위해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지난 2월에 마을별 신청을 받은 결과 78개 마을이 신청한 가운데 부서평가와 익산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은 당초 마을에 조리원을 두고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마을회관 내에서 급식이 여의치 않아 마을별로 도시락 배달 또는 식당 이용으로도 가능하도록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인 가족 20인 이상 급식에 참여하는 농촌지역 마을과 도시지역 마을 중 농업인이 8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 마을은 마을당 3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급식 기간은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해 상·하반기 분할 운영이 가능하다. 도시락 배달 또는 식당 이용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락 급식 등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은 현장에서의 농민들 호응이 큰 사업으로 바쁜 농번기에 급식 준비 일손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어르신들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익산시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장승호)와 북부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덕)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12일 양 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는 익산시에 거주 중인 어르신과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프로그램 및 시민강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살 및 우울예방교육, 생명지킴이교육, 정신건강상담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동물등록 활성화 지원사업 지속실시

군산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물등록 활성화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한 동물등록(무선인식장치 내장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동물등록은 관내 12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동물등록 시 비용이 3 ~ 5만원 정도로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있어, 일정 비용인 1두당 2만원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마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이어야 하며,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동물등록 방법 가운데 내장형 등록방식은 외장형보다 훼손 및 분실 가능성이 적고, 반영구적이어서 동물 유기·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 파악이 가능해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산=김판곤기자